

호주 · 미국 · 영국, AUKUS Pillar II 프로젝트 발표

'26.06.15(월), 멜버른무역관

□ 개요

- 호주, 미국, 영국은 AUKUS 협력체계의 Pillar II(첨단역량 협력) 분야에서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(signature project)로 무인 수중체계(Uncrewed Undersea Vehicles, UUV) 개발을 추진하기로 발표함. 해당 프로젝트는 2026년 5월 30일 AUKUS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으며, 3국이 해저 해 공동으로 무인 수중 전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

□ 상세내용

- AUKUS 첨단 역량 협력(Pillar II) 본격화
 - 호주, 미국, 영국은 AUKUS 출범 이후 처음으로 Pillar II 분야의 공식 공동 프로젝트를 선정하고, 무인 수중체계(UUV)를 활용한 해저전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
 - 이번 사업은 3국이 공동으로 개발 · 시험 · 운용하는 형태로 추진되며, 기존 유인 전력과 무인 체계를 연계한 해저 작전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
 - AUKUS는 기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Pillar I과 함께 AI, 자율 시스템, 전자전, 사이버, 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
- 무인 수중체계 활용 목적: 해저 감시 및 인프라 보호
 - 이번 UUV 개발은 해저 환경에서의 감시 · 정찰 및 작전 능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, 해저 케이블 등 핵심 인프라 보호 필요성이 중요한 배경으로 언급됨
 - 또한 무인 수중체계는 해상 상황 인식 강화, 정보 수집, 그리고 해저 공간에서의 다양한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임

□ 무역관 의견

- 이번 프로젝트는 AUKUS 협력이 핵추진 잠수함 중심의 전통적 전력 확보를 넘어 무인체계와 첨단 기술 중심의 미래 전력 구축 단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
-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해상 교통로의 안전성이 주요 안보 이슈로 부각되는 한편, 세계 각국에서는 해저 통신 케이블과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.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호주·미국·영국이 무인 수중체계를 AUKUS Pillar II의 첫 공식 공동 프로젝트로 선정한 것은 해저 감시·정찰 및 인프라 보호 역량이 미래 안보 전략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
- 이번 사업은 수중 센서, 통신 시스템, 데이터 처리, 자율 운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세부 기술이 결합되는 분야라는 점에서, 향후 관련 공급망과 기술 협력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
□ 정보원 및 일자

- * 2026년 5월 30일, Australian Government(<https://www.minister.defence.gov.au/statements/2026-05-30/joint-statement-aukus-defence-ministers-meeting>)
- * 2026년 6월 2일, Australian Government(<https://www.defence.gov.au/news-events/news/2026-06-02/aukus-partners-launch-pillar-ii-project>)
- * 2026년 5월 30일, ABC News(<https://www.defence.gov.au/news-events/news/2026-06-02/aukus-partners-launch-pillar-ii-project>)